

투데이 칼럼

깨우고 알리고 누른다 ('깨·알·누')

유 난히도 추운 겨울이 지나 가고 따스한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 시기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나 구급출동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신행 중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혈관질환이다.

한국인 사망률 중 암 다음으로 높은 것이 심장 및 혈관질환으로 급성으로 발생하는 심장 마비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알리고자 한다.

'급성 심장 마비'는 인구 고령화라는 시대적인 환경과 생활적 질병 위험 요인인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에 어우러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은 다양하지만 특히 급성심근경색은 심장 마비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심장이 원활한 펌프 역할을 하려면 심장근육으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딱딱 혈액공급이 되지않는 상태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의 가운뎃가 아프고 누르는 듯한 증상 및 조여오는 느낌등 가슴의 불편감이 발생하여 수분이상 지속될 때,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구역질과 어지러움 등이 발생 한다.

일단 심정지가 발생하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심장이 멎은 후 4-5분이 경과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추후 심장박동이 다시 시작 되더라도 치료 후 징후가 좋지 않고 의식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깨, 알, 누를 익히고 널리 알리기를 강권하는 바이다.

'깨, 알, 누'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은 환자를 깨우고, 주변 도움요청을 위해 알리고, 환자의 가슴뼈 중앙 아래쪽을 1분에 100회 이상 반복해 누르라는 행동요령 이다.

주변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다면 같이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①최초 목격자의 적절한 행동→ ②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의 신속한 처치와 이송→ ③응급센터에서의 전문 치료로 이어지는 이른바 '생존의 연결고리'가 불

흐르듯 연결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 주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 하였을 때 승용차로 환자를 옮기는 것은 이송 도중 응급처치를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지정해 119 신고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응급처치에 매달려야 한다.

불과 4-5분만에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이 시간에 당황하지 않고 주변 또는 가족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어렵지 않다.

'깨 알 누' 깨우고 알리고 누르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자전거나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한번 배우고 나면 자신 있게 시집 할 수 있는 우리 서로의 안전 보호막이다.

내가 변하고 노력하는 진취적인 사고로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것은 어떤까?

관심을 가지고 소방청 홈페이지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배우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여도 된다.

우리가 덧붙이지는 오늘이 어제 그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음을

생각하며 최근에 읽은 아들러의 마음발음 용기의 책속의 한구절을 적어본다.

자신에게 집중하며 사회에 공헌하며 지금 이 현실에 스포트라이트를 켜라.



전 명미 고청소방서 방호구조과 구급담당자

독자제언

농기계 등 안전사고 주의가 필요

경철생활 대부분을 한직한 시골에서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오래하다보니 농사철인 요즘 경운기, 트랙터, 오토바이 등 농기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현장에 자주 출동하게 된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농기계 보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재 농가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경운기는 도로주행 중 속도가 느리고, 야간등화장치(방향지시등, 후미등)의 미부착으로 인해 과속차량에 추돌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며, 굴곡지대 및 눈목에서의 전복사고도 모든 농기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운기 등 사고는 일반 차량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10배가량 높다고 하니 시골지역에 맞는 예방활동도 필요하지만, 농기계 운전자 또한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욱이 농촌지역은 도로가 굽고 경사진 곳이 많고, 지속적으로 운행하므로

사고위험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경운기 운전자는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기를 당부한다.

먼저 야간에 농기계 운행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특히 음주상태에서 농기계를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 야간에 농기계를 운행할 때는 다른 차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농기계 뒷면에 야간 반사판을 부착한 후 도로 갓길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하며 경운기 등 농기계의 과적행위와 적재함에 사람 등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또한 노약자 혼자서 비탈길 등에서 운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니 삼가야 한다.

또한 농사철 곡도 등 차량운행 시에도 농기계 교통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앞장서야겠다.

정태철순창경찰서 교통조직계

독자제언

어린이가 먼저

어도내 교통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00%이상 발생하며, 자동차 중 교통사고 치사율은 5.1%로 이륜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전년대비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15.4%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불철 화물차 사망자는 7.7명으로, 평월 6.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사업용 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높은 38.5%를 차지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달 승용차가 주차된 트레일러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화물차량의 적재초과나 적재불량, 방생주차 등 위반행위에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졸음운전 등이

원인이었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관내 운수업체나 인턴 및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화물차량의 적재방법과 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이 미등 미작동 등 정비불량 위반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적이나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대형사고야기 요인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평소에 꼼꼼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등 법규준수 생활화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하겠다.

전군수진인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군산 GM 5월 폐쇄 사실인가

전북도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코스프레 비슷한 것은 그 효력이 오래가지 않는다. GM의 5월 폐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을 말해주었으면 한다. 군산 쪽에서 들려오는 성난 민심의 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저번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시장과 군수 등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은 도민 4천여 명과 함께 손과발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GM 폐쇄 결사 반대를 외쳤다. 그런데 그와 때를 같이해서 다른 쪽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된다는 특별교부세 말이다. 도지사가 행안부 김부겸 장관에게 요구해 총 84억 원의 예산을 긴급 지원하게 됐는데 그게 제대로 된 수습인지 물어보고 싶다. 군산 현대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더 커져온 GM사태를 생각하면 그쪽 문제가 시급하다. 그런데 엉뚱한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군산산업단지가 20년이 된 노후 산업도로 도로 파손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그 때문에 민원이 속출했는지 알고

싶다. 설사 민원이 있었다 해도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공장 폐쇄에 대한 반응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터이다.

전북도는 잘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보여준 주먹 쳐들기 구호 행보와 손피켓 구호 행보는 부족하다. 그것은 전북도에 대한 군산 시민들의 원망의 강도를 낮추게 하려는 것으로 의심될 우려가 있다.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 시설 보강이 당면한 일이라는 해도 더 시급한 문제는 실직자들의 일자리 고민을 해결하는 일이다. 말 그대로 '군산 패싱'이 현실화돼선 안된다. GM의 인건공장과 창원공장은 살리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말이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사태를 방지한 책임을 물어 정부와 산업은행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모양이 우습다. 마치 그게 목적인 것처럼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GM의 폐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경제 불행감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오로지 GM 정상화를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 그게 답이다.

청년 실업 문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부족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요즘이다. 서울의 유명한 언론사들도 그에 대한 기획 기사를 내놓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론 전북도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그래도 미취업자들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반응이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도내 비경제활동 인구가 2만 명이나 되는 것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알핏 생각해 비경제 활동 인구가 2만명인 것을 두고 그만하면 고민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을 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비경제활동자는 실업자와 달리 앞으로 계속 무직자로 남을 공산이 크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채용은 극히 일부만 구제시킬 뿐이니 말이다. 저번에 공무원의 응시를 보니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그때 경쟁률이 무려 25대 1이었던 것이다. 스물다섯 명 중에 한 명만 뽑는 것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그 누구도 아니

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터이다. 전북도는 그러므로 다른 관측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겠다. 도내에 관측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지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만 이어나가 모두를 흡수 정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민간기업들도 그래야 한다.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관측은 일자리 만들기 에 나서야 한다. 언론 홍보용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척 하는 것은 할 담치 않다. 기간제나 시간제 일자리로는 곤란하다. 관측은 일자리 만들기 는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거리가만 한다.

도내에는 취업을 절박처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측은 일자리 만들기 는 한두 번 시도해보고 말 성립의 것이 아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측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전북도는 기간제나 시간제 일자리를 두고서 실제 운운하지 않기를 바란다. 비경제활동자로 분류된 이들은 놓고 싶어서 놓고 있는 게 아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것이다. 전북도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